

## 입당송 |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 제1독서 | 미카 5,1-4ㄱ

## 화답송 | 시편 80(79),2ㄱㄷㄹ과 3ㄴㄷ.15-16.18-19(◎ 4)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  
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  
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  
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 제2독서 | 히브 10,5-10

## 복음환호송 | 루카 1,38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  
기를 바랍니다. ◎

## 복음 | 루카 1,39-45

## 영성체송 |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라 하리라.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마음속 '작은 구유'

학생들은 시험 전날 벼락치기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험 날짜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추석이나 설날에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차린 건 별로 없는데 시간이 순식간에 지났음을 절감합니다. 몇 년째 답답한 일상을 살다 보니 2021년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 후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며칠 뒤 우리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상에 파묻혀 정신없이 지냈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생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아기 예수님과 만남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작은 구유'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셨다면, 잠시 침묵 중에 마음속 '작은 구유'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 가축들의 여물통에서 포대기에 싸여 누어있는 가냘픈 갓난아기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갓난아기는 매우 연약하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배고프거나 두렵거나 아플 때면 울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갓난아기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이 갓난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기는 매우 작고 여리며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갓난아기의 여린 모습에서 하느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1,37)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듯, 인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하느님께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아기 안에서 일하시고, 그를 세상의 구원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신비는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교회 공동체 신자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도 발견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2코린 12,10)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유한 정체성과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포대기에 싸여 구유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약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비로소 하느님께서 당신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로이 일하시도록 각자의 인간적 약함과 결함을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우리 역시 아기 예수님처럼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약한 존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온 누리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미리 기뻐하는 우리 역시 마음속 한구석에 '작은 구유'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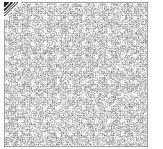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5)**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1,37) 이 든든한 말씀 때문에 행복합니다. 곁에 함께하시며 지혜의 샘물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치이고 상해서 아파할 때 슬픈 마음에 문을 '똑똑' 두드려 "떨어, 나에게 모두 다오. 그리고 기쁘고 포근한 가슴으로 사랑을 나누는 가치 있는 하느님 자녀로 행복해라." 속삭이십니다.



김현주 요셉파나 | 가톨릭사진가회



홍미라 루치아 수녀  
인보성체수도회 서울 인보의집 원장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회복지처에서만 소임을 살다가, 20년 만에 본당 소임을 맡아 가게 되었습니다. 신자 중 처음으로 만난 자매가 오늘 이야기를 풀어 나갈 효임 골롬바 자매입니다. 본당에서 구역장을 맡고 계시면서, 성당의 일이라면 굶은일 가리지 않고 앞장서시고, 주변을 밝게 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효임 골롬바 자매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빌라 반지에서 사십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신앙생활과 봉사도 열심히 하십니다. 집은 언제나 깔끔했고, 봉성체 대상이셨던 친정어머니(마리아) 역시, 정갈하게 씻겨드렸습니다. 유난히 힘들어 보이는 날 제게 면담을 청했습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고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는 가난이 싫어서, 아버지와 어린 자녀 셋을 버리고 집을 나가셨답니다. 엄마 없이 아버지와 동생들과 살았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마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소녀가장이 된 자매는 이를 악물고 동생들을 공부시켰고, 동생들도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앞가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도 결혼해서 남매를 낳았지만,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에 의지하며 혼자의 몸으로 어린 남매를 공부시키고, 결혼을 시키며 숨통이 트일 무렵, 친정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어릴 적부터 키웠던 자녀들에게 쫓겨나 갈 곳이 없어 왔답니다. 동생들은 누나에게 우리를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자기 자식 버리고, 남의 자식을 키워주고 무일푼으로 쫓겨나와 어디를 오냐며 언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동생들은 누나가 엄마를 받아들이면 누나와도 인연(因緣)을 끊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친정어머니를 모시게 되었고, 친정어머니를 입교시켜 가톨릭 신자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효임 골롬바 자매가 말합니다. “친정엄마가 정말 밍습니다. 동생들 말처럼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늙고 병들어서 찾아올 수 있냐”고요. 동생들은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은 큰 딸이라 엄마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애증(愛憎)의 모녀라고 하면서, “수녀님! 저는 친척도 없으니,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수녀님이 배웅해 주세요.”, “제가 이곳 본당에 있는 동안 주님 곁으로 가시면 그렇게 해 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어르신은 정말로 제가 본당을 떠나기 전에 선종하셨고, 수녀로서 사회복지사로, 장례지도사 일을 해 왔던 저는 약속대로 마리아 어르신의 수세를 거두고, 수의(壽衣)를 입혀드리고, 입관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거부했던 동생들도 화해를 하고, 장례미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배웅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 복된 해를 이어가며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자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희년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두 분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희년(禧年)이 끝나고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며 희년을 잘 살았는지 반성해봅니다.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라는 주제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과 최양업 신부님을 기억하는 올 한해에 그분들이 살아생전 보여주었던 신앙의 증거와 성무 활동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어려운 마카오 유학 생활 중에 김대건 소년이 성장통을 극복해가며 청년 신학생이 되어 통역의 임무를 수행하고 신덕(信德)과 용덕(勇德)을 키워나갔습니다. 김대건 신부님만이 가진 과감성, 그것이 때로는 스승 신부님들에게는 위험한 모험으로 보였을지라도, 나룻배를 몰고 서해를 건너며 바닷길을 개척했던 조선의 첫 사제! 옥중 생활에서, 새남터 형장에서 보여주었던 신앙의 용사로서의 모습!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오.”하고 믿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라고 형벌의 칼 앞에서 공표했던 김대건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한해를 지내면서 우리는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라는 질문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요? 혹시 코로나19를 핑계로 “저는 잠시 쉬는 중입니다.” “저는 냉담 중입니다.” “온라인이 훨씬 편합니다.”라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동갑내기 최양업은 첫 번째로 부르심 받은 신학생으로 학생 시절과 사제생활 내내 스승과 동료 사제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규칙적이고 바른 신학생,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신학생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베르뇌 주교님으로부터는 “12년 동안 끊임없이 그는 사제의 모든

본분을 지극히 철저하게 지키며 모범을 보였고, 구령사업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1861년 9월 4일 베르뇌 주교의 서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최양업 신부 같은 이가 10명만 되면 조선 팔도가 다 복음화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그분의 겸손함에서 드러나는 성실한 성무 활동으로 산골 교우촌을 방문하며, ‘찾아다니는 사목’을 하였습니다. 한여름 휴식 시간에는 다블뤼 주교님의 작업을 도와 교리서와 기도서의 한글 번역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교우들의 삶과 영혼을 돌보시다가 길 위에서 선종하신 사제입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에는 김대건 성인과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 두 기둥이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희년을 지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복된 한 해의 기쁨과 구원을 한 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뜻에 있습니다. 희년은 복된 해, 기쁨의 해, 대사(大赦)의 해, 곧 용서와 구원의 해입니다. 희년은 끝났지만 두 분이 남기신 피의 순교와 땀의 순교의 자취는 피땀 어린 정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말씀(言)이 사람이 되신(成) 정성된(誠) 역사를 되돌아보며 희년(禧年)을 다시 살아갑시다.

“저는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형벌을 끝까지 이겨낼 힘을 저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1846년 6월 8일 김대건의 옥중 편지)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 한국교회사연구소장

## 12월 25일(토)은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성대하게 기리고자 구유 경배와 함께 밤, 새벽, 낮 세 번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밤 미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전하는 복음을, 새벽 미사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음을, 낮 미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전하는 복음을 봉독합니다. ‘성탄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주님 세례 축일까지입니다.

## 12월 26일(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 이날부터 ‘가정 성화 주간(12월 26일~2022년 1월 1일)’이 시작됩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TV · 라디오 성탄 미사 생중계

명동대성당 밤미사	12월 24일(금) 23시 45분	TV · 라디오
명동대성당 낮미사	12월 25일(토) 12시, 18시	TV · 라디오
바티칸 밤미사	12월 25일(토) 3시 20분, 20시 30분	TV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0년 12월 20일 이내수 아우구스티노 신부(38세)
- 2011년 12월 22일 용동진 바오로 신부(56세)
- 2011년 12월 26일 이계광 세례자 요한 신부(90세)
- 2013년 12월 20일 김진규 다니엘 신부(36세)
- 2014년 12월 21일 박노현 요한크리소스토모 신부(67세)

### 서울주보 홈페이지 cc.catholic.or.kr

서울주보 게재신청은 **교회기관 · 수도회** 이거나, **서울대학교 사회사목국 · 서울대학교 단체사목부**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구정일림

### 서울대학교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집전: 최우주 신부(베루 및 멕시코 선교 후 귀국)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때: 2022년 1월6일(목) 오후 2시~3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27-2407, 2409

###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2022년 1월11일 13시30분~16시30분 매일 두번째(화)  
곳: 서울대학교 교구청 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학교 생명위원회  
2022년 자세한 일정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orlife.or.kr>) 참조

###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안내

손자녀를 둔 조부모들이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부여받은 ‘신앙의 전수자’라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자기 자신과 노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나은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를 개설합니다  
교육대상: 5~7세의 미취학 손자녀를 둔 조부모

교육 시기	2022년 4월~5월(6주 과정)	(월) 오전 10시~12시30분
	2022년 9월~10월(8주 과정)	(화) 오전 10시~12시30분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회비: 10만원(MBTI 검사비 포함)  
교육내용: MBTI 검사와 작업, 즐거운 조부모 생활(손자녀 발달 이해와 공감, 자존감 키우기), 손자녀에게 전해줄 신앙 이야기, 노후 준비(죽음 준비, 노후재정과 건강한 노년) / 신청기간: 2022년 2월 모집 예정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isenior.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385 노인사목팀

###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김영남 개인전: 1전시실  
제23회 서강미술가회 정기전: 2전시실  
전시일정: 12월22일(수)~27일(월)  
김지영 도예전: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15일(수)~27일(월)

###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2-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 성사를 받은 교우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http://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교육기간: 2022년 2월9일~7월6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신청기한: 1월28일(금)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허대복 안드레아’  
때: 매달 셋째주(화) 12월21일 오전 10시(169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성당  
12월 시복시성기원미사는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봉헌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참석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당일 선착순 마감)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 서울대학교 사목 상담, 대면 수업

주제: 자존감 되찾기 / 강사: 문중원 신부  
때: 2022년 1월8일~4월9일 매주(토) 오전 10시~12시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 2022년도 총구역장 연수

대상: 남성총구역장, 여성총구역장  
때: 2022년 1월8일(토) 11시~12시30분  
곳: 주교좌 명동대성당 / 회비 없음(2022년 1월4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 서울대학교 청년생활성가밴드 ‘유빌라떼’ 단원 모집

모집 분야: 보컬, 드럼  
문의: 02)762-5071, 2 서울대학교 청소년국 청년부

### 직장인 금요미사 재개 안내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직장인 금요미사가 재개되었습니다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문화관 2층 소성당(명동)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299차 미사 12월2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학교 재령 본당, 서흥 본당 / 문의: 02)727-2420  
유투브로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투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 직원모집

###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 1522-9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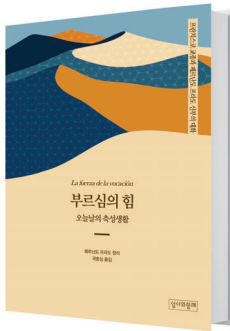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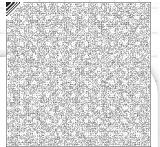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직원 모집

분야: 연구직원(육아휴직 대체자) / 대상: 견진 성사 받은 대졸자, 주일학교 교사 경력자 우대  
업무기간: 2022년 3월2일~2023년 5월31일  
2022년 1월15일(토)까지 이메일(kycca@catholic.or.kr) 접수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직자 추천서, 교적 사본  
홈페이지([www.kyccs.or.kr](http://www.kyccs.or.kr)) 참조 / 이메일 문의

### 수유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 문의: 02)999-970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한 분  
업무: 시설관리, 미화 업무, 운전 가능한 분(1종)  
서류: 응시원서(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각1부  
12월19일(일)까지 우편(우 01043,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165) 및 이메일(suyusamu@hanmail.net) 접수  
접수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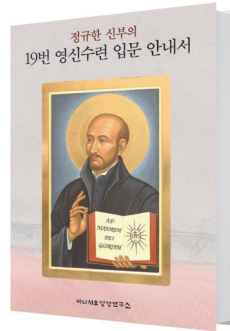




신간  
**부르심의 힘**

페르난도 프라도 지음  
성서와 함께 | 176쪽 | 1만2천원  
문의: 02)822-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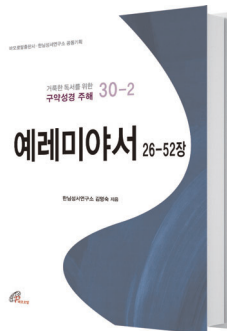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쉽없이 변한다. 그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고 부르받은 이들이 있다. 바로 '축성생활자'이다. 이 책은 축성생활자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들을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 그들이 지녀야 할 태도를 성찰하게 한다.



신간  
**정규한 신부의  
19번 영신수련  
입문 안내서**

정규한 지음 | 도서출판 이나시오영성연구소  
160쪽 | 1만원  
문의: 02)3276-7799

예수회 이나시오영성연구소 부설 생활기도 수련원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저자가 평신도 영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집필한 책이다. 다년간 영신수련 19번 피정을 지도하면서 쌓인 정규한 신부의 노하우와 예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신도들도 영신수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신간  
**예레미야서 26-52장**

김명숙 지음  
바오로딸 | 460쪽 | 2만6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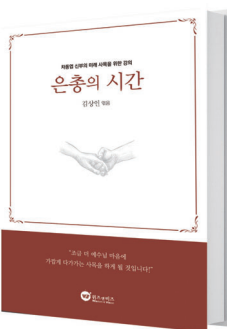
이 책은 예레미야서 26-52장의 성경 본문 전체를 신고 각 장과 절마다 각주를 붙여 자세히 해설한다. 주해는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어 거룩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잠길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신간  
**성서와  
인간 시리즈  
(개정판)**

송봉모 지음  
바오로딸 | 9만4천원  
문의: 02)944-0944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신앙인들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던 송봉모 신부의 성서와 인간 시리즈를 바오로딸 출판사 60주년을 기해 리커버 개정판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많은 이들이 말씀 안에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간  
**은총의 시간**

김상인 지음  
위즈앤비즈 | 252쪽 | 1만6천원  
문의: 031)986-7141

故 차동엽 신부. 그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사목을 향한 그의 노력과 열정의 흔적은 그가 남긴 수많은 저작물 안에서 고스란히 발견된다. 차신부의 방대한 사목 연구 자료를 미래사목연구소장이자 인천가톨릭대학교 사목신학 교수인 김상인 신부가 한 권의 책에 집약시켜 세상에 내놓았다.



신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 2**

서울대학교 사목국 노인사목팀 지음  
들숨날숨출판사 | 40쪽 | 1만1천원  
문의: 02)2266-3605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손자녀들에게 어렵지 않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고, 색칠과 스티커 작업, 미로 찾기, 구유 만들기, 퍼즐 맞추기, 문제풀이를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본당에 납부하신 교무금, 감사헌금, 성소후원금,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납부자 명의로만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납부일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을 '본당 사무실'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미작성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성당 사무실을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필히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동의서를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작성하신 분들은 재작성 대상임.)

① 납부자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12월 26일(주일)까지 성당 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이후에는 국세청으로 자료 이관돼 성당 사무실에서는 정정이 불가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납부자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12월 26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상으로는 납부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③ 은행을 통해 교무금을 자동이체 하고 계신 경우 12월 26일(주일)까지 2021년도 납부내역을 확인해 주십시오. 은행 납입분은 본당으로 내역이 넘어 넘어오는 데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12월 26일(주일) 안으로는 21년도 교무금을 완납해 주셔야 하며, 납입자 성명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전산 장애분으로 납입돼 연말정산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12월 6일 ~ 12월 12일 : 205,000원) 누계 : 2,558,641,388원

이 은 실 : 200,000원 | 이 광 복 : 5,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성탄봉헌금 접수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성당 안과 마당에 마련될 구유와 제대 트리, 꽃 장식을 위한 '성탄봉헌금'을 본당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 2022년도 달력 배부

명동 교적 신자분들은 본당 사무실에서 본인 확인 후 '한 가정에 1부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하반기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추천

·추첨일시·장소 : 1월 14일(금) 오후 2시 / 대성당

☞ 오후 1시부터 대성당 입구에서 추첨순서 번호표를 배부합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중 추첨, 양도 목적 등 위반 적발 시 마지막 순서로 배정됩니다!)

·혼인예약기간 : 2022년 7월 ~ 12월

Table with 3 columns: 혼인장소, 요일, 시간. Rows include 대성당 (금 13시, 토, 공휴일 12시, 15시) and 패밀리아 채플 (금 17시, 토, 일, 공휴일 11시, 14시, 16시)

·필수준비사항 : ① 교적증명서 1부 (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 50만원 (현금 또는 수표)

※예약금 납부는 계좌이체·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본당 홈페이지→혼인성사 안내→'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한인성당 교적자 제외)은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혼인성사를 받기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오시고, 이를 혼인 추천 당일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첨 이후 혼인예약 현황은 2022년 2월 4일(금)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명동대성당 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레지오 마리아'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대 상 : 세례를 받은 35~45세 교우

·문 의 : 평화의 모후 Cu.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참고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회합 진행 중 (추후 대면 회합 진행 예정)

◎ 명동대성당 청년 전례단 '쉐마' 신입단원 모집

·주요활동 : 주일 오후 7시 청년미사 전례봉사

·모집대상 : 20세 이상 33세 이하 천주교 신자

·모집기간 : 12월 31일(금)까지

·면담일자 : 2022년 1월 9일(주일)

·신청방법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공지 참조

·문 의 : 단장 송대호 님 ☎ 010-2922-1369

◎ 늘푸른 청년전례단 '아뉴스 데이' 신입단원 모집

·주요활동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늘푸른 청년미사의 전례 봉사, 청년봉사부와 활동 참여 및 봉사

·모집대상 : 33세(1989년)~42세(1980년) 천주교 신자로서 매주 책임감 있게 전례단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청년

·모집기한 : 2022년 1월 2일(주일)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공지 참조

※모집기한 후 세부일정은 지원자에게 개별 공지됩니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보 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과 축복이  
교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본당 사제단, 수도자, 사목협의회 일동 -

## 《 대축일 미사 · 송년 감사미사 》

### ◎ 주님 성탄 대축일

† 12월 24일(금)

\* 평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10시  
(※ 오후 6시, 7시 미사 없음.)

\*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총 2대)

· 밤 9시 미사

- 주례 : 손희송 베네딕도 총대리주교님  
- 오후 7시 입장, 구유 예절(오후 8시)

· 밤 12시 미사

- 주례 :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 밤 9시 미사 후 입장, 구유 예절(오후 11시)

☞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25일(토)

\* 미사 : 주일미사 시간과 동일  
(※ 단, 오전 7시 미사는 없음.)  
- 교중미사 주례 :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 ◎ 2021년 송년 감사미사

올 한 해 동안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2021년 송년 감사미사를 봉헌합니다.  
※ 12월 31일(금) 평일미사 모두 봉헌합니다.

† 12월 31일(금) 밤 11시

- 주례 : 손희송 베네딕도 총대리주교님

☞ 송년미사 참례 시 주차료는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토요일)

\* 미사 : 주일미사 시간과 동일  
(※ 단, 오전 7시 미사는 없음.)  
- 교중미사 주례 :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 미사 후 대주교님과 새해 인사

### ◎ 12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3,927,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 하반기 견진성사 》

· 12월 26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 주례 : 구요비 읍 주교님

※본 미사에는 견진 당사자와 대부모님만 입장 가능

### ◎ 대림 시기(11월 28일~12월 23일) 판공성사

※대림 제 1 주일부터 보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  
됩니다. 본당 사무실에서 성사표를 받아 12월 23일(목)  
까지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사를 보신 후에는  
교적에 성사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사표를 꼭 제출  
해 주시고, 성사표 없이 성사 보신 명동 교적 신자분들은  
내방 또는 유선으로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해성사 휴무 : 12월 24일(금)~2022년 1월 1일(토)

### ◎ '희망 트리'에 소원을 달아 드립니다!

대림 기간 동안 주일미사 때 본당에서 제공하는  
색종이를 받아 소원을 적어 접수하시면 '희망꽃'에  
담아 성당마당 구유 옆 '희망 트리'에 달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비신자도 참여 가능)

### ◎ 교무금 책정 및 납부

어려운 중에도 2021년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정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한신대로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고,  
2022년도 교무금 책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자동이체나 온라인으로 교무금을 송금하실  
경우 사무실에서 금액 책정을 먼저 하신 후 은행을  
통해 납부하셔야만 장애 처리가 되지 않사오니 본당  
사무실에서 교무금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2/6-12/12).....	41,787,000
· 대림 제 3 주일 헌금.....	20,669,140
· 자선 주일 2차 헌금.....	8,889,000
· 감사헌금 (12/6-12/12).....	4,338,000
김 가브리엘라 / 김 미카엘 / 박 미카엘라 백 안젤로 / 유 릴리안 / 이 바오로 이 소피아 / 이 안드레아 / 임 사무엘 전 스텔라 / 정 안젤라 / 정 엘리사벳 차 아가타 / 천 수산나 / 천 테클라 / 최 안나 최 필립보네리 / 하 바틸다 / 훗 플로라 REBECCA DONNA D'SOUZA	